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 감로만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다. 대통령을 누구로 뽑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지만 우리 승리제단 신도들은 어떤 후보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시킬 적임자인지를 살펴보고 뽑아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

### 삶을 뒤바꿔줄 리더

우리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대통령을 원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엉망진창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이 피폐해진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도심을 가로지른다. 대외활동의 제한에 따른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폭력 등이 심각한 현대 작년에는 스톱키 범죄로 인한 살인 범죄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 등 도처에 갈등을 부추기는 핵폭탄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뒤집기를 원한다. 누구나 다 잘 사는 세상, 평등과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세상, 서로서로 존경하며 아끼고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세상을 원한다. 어떡하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대통령을 잘 뽑으면 될까? 그렇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장본인

구세주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종교적인 의미로만 한정한다. 더욱이 신종교에서 '구세주' 운운하면 사이비를 떠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부정적 경향은 지금까지 가짜 구세주가 진짜인 양 가



2004. 6.24 평택제단에서 나타난 감로 이슬신

면을 쓰고 행세해 왔다는 것이고, 또한 진실한 구세주가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실 구세주란 종교에만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다. 구세주를 딱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 즉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일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뉴스에 등장하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식량문제 및 주거문제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식량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류는 상당히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어 보인다.

구세주는 이러한 먹고사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다. 구세주는 이슬을 들고 나오는데 앞으로의 세계에서 인류는 이 이슬을 먹고서 생존하게 된다.

이슬이란 성경과 불경, 격암유록에서 말세의 주인공이 가지고 나오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슬은 하나님의 신이다(호세아 14:5). 이슬(감로)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약이다(열반경). 이슬(감로)은 불로불사의 약이다(격암유록).

### 이슬은 인류의 모든 난제(難題)를 해결한다

이슬은 생명의 양식이다. 성경은 이슬이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대중에 오직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은 감추었던 만나라고 계시록

(2:17)에서 예언함으로써 이슬만 먹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앞에서 경전의 각 구절을 인용한 것처럼 이슬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한다.

더 나아가 이슬은 사람을 현재와 같은 육신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 몸은 날아다니는 몸으로서 썩을 양식을 먹지도 않는 몸이며 배설도 하지 않는 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면 인구문제, 식량문제,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평화와 자유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처럼 구세주가 가지고 오신 이슬은 우리 인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 구세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

각 경전은 그 경전의 주인공의 증표로 이슬을 들고 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승리사 구세주에게 이슬로써 함께한다(호세아14:5)고 하였고, 불경에는 미륵불은 감로를 들고 나온다(열반경 전체)고 하였으며, 격암유록의 주인공 정도령도 감로해인이 증표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그토록 선지성현들이 꿈만 꾸어 왔던 감로가 출현했음에도 감로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눈이 자꾸 향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각 종교로 나누어진 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주인공은 이슬을 그 증표로 한다. 전 세계 인류들은 이러한 이슬의 귀중성을 빨리 인식하여 진짜 구세주가 오셔서 이슬을 내리시어 만민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할 것이다.\*

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일의 성공 보다는 구세주 하나님이 되는 게 우선 목표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수시로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나는 지금 영생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구세주를 만남으로써 이 세상 만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다 받았다.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완성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쉽지만 전도활동을 해야 한다. 지금같은 비대면 사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삶의 목적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인내로써 승리해 나가자!\*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구세주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 번 넘어지면 천 길 만 길 넘어져도 떨어진다. 그래서 더러는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시계초 모양 제단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대서는 안 된다. 더욱 마음의 고삐를 움켜쥐고 앞으로 달려야 한다.

### 하나님이 되는 게 삶의 목적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 맡은 바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구세주께서는 삶의 목적은 구세주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승사 이긴 평신도이건, 제단 일을 하건 세상 일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23>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받들어라”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림으로 나라 는 의식이 약한 마음이고, 약한 마음이 악령이다. 이 엄청난 사실을 공자나 맹자 예수 석가도 전혀 몰랐고 그 누구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처럼 받들면 나라는 주체의식은 밑으로 처지면서 고립되는 것이다.

그때 이긴자가 철장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악령을 두들겨 부수어 죽이는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죽었다는 증거는 소변으로 시커먼 피가 쏟아져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요 자유율법의 총강이다.\*

나라고 하는 악령을 죽이는 비결은 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여기고, 저 사람도 하나님처럼 여기고,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

### 발행인 칼럼

## 최제우의 동학과 승리제단

최근 도올 김용옥 선생의 저서 『동경대전』과 김삼웅 선생의 『수운 최제우 평전』을 읽어 보고, 도올TV를 시청하면서 수운 선생의 삶과 깨달음이 조희성님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두 분을 비교하여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를 살펴본다면 매우 흥미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친 짧은 공적 삶을 살았고, 조희성님은 1980. 10.15. 이긴자가 된 후 그 이듬해인 1981. 8.18. 공적 삶을 시작하여 2004. 6.19. 보광에 이르러까지 24년간 진리를 설교하며 천지공사를 행하는 동안 두 번의 옥고를 치렀다.

### 비극적 운명과 누명

필자는 서른 두 살 때부터 영생교 승리제단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몸을 담고 있으니 30년 이상 조희성님을 따랐고, 더욱이 1989. 11월 경 도서출판 해인의 대표, 1988년 승리신문사 편집인이 되어 승리제단 언론 및 출판 담당자로서 이 삼십 년을 근무하면서 지근에서 영생교 승리제단의 설립자이신 조희성님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언행과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수운 선생과 조희성님을 비교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겠다. 오늘은 두 분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고자 한다.

셋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점이 같다. 수운의 가르침은 동학으로서 서학과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럽들의 무고로 옥세무민사도 난정(邪道亂正)의 죄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 조희성님의 고초 또한 이슬신신을 내려 영생을 준다고 옥세무민했다며 사기죄로 처벌 받았고, 범인은닉죄로 몰려 억울한 옥중고난을 겪었다. 동학교인들은 수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조신원 운동을 벌여 교조으로부터 사면되었지만 아직까지 영생교 승리제단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다.

### 교리 원본 존재의 중요성

첫째, 대개의 종교, 신종교를 제외한 전통종교의 경전은 그 종교의 창시자가 설교한 말씀의 원본이 현대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두 분의 경우에는 말씀 원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같다.

넷째, 최제우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은 조상으로 부터 받은 영향이다. 특히 인친왜란과 병자호란에서 혁혁한 충성심을 발휘한 7대조인 최진립과 영남 남인들 중 뛰어난 유학자였던 부친 최옥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최제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막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제우 선생은 상제 또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무극대도를 알리기 위하여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손수 기록하였고, 조희성님은 자신이 주장한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이라는 내용의 설교 말씀 과일이 원본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물론 조희성님은 수운과 달리 직접 교리를 글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직접 쓴 글은 1994.1부터 2000.8.14까지 옥중에서 신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의 형태로 기록된 것뿐이다.

반면 조희성님은 조상에 대한 자랑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서 일제 시대에 태어나 굶주림에 고통을 받았고, 나라가 없는 실용을 겪었으며,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예수교인이라서 경찰관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이다. 다만 할아버지가 유학을 공부했다는 점, 외조부가 동학 교인이었다는 점만 자신의 간증담에서 말했다는 뿐이다. 또한 자신의 친동생 조희동 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창녕 조(傅) 씨의 성품은 대쪽 같다고만 했을 뿐이다.

둘째,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는 점이 같다. 수운은 1860. 음력 사월 초요일 무극대도를 받고, 1861년부터 가르침을 썼으나 사교로 오인되어 정부에 의해 1864년 3월 참수를 당하는 약 3년간에 걸

이밖에도 교리의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이를 비교 고찰하는 게 중나 사교로 오인되어 정부에 의해 1864년 3월 참수를 당하는 약 3년간에 걸

## 삶의 목적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한다. 누구는 금연을, 누구는 운동을, 누구는 외국어 공부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다. 당신의 올해 결심은 무엇인가? 우리 승리제단 신도들의 결심은 무엇인가?

### 인내로 이기자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내 안의 마귀의 마음과 투쟁을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싸워서 이기지 못한 마귀를 정복 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혈기마귀, 음란마귀, 미워하는 살인마귀를 이긴 후

말하지 못하는 의심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면 올해는 그 마귀를 꼭 이겨야겠다고 결심할 것이다.

그런데 마귀는 수천 년 묵은 돌구멍이 마귀이기 때문에 한 번 마귀에게 지면 지금까지 이겼던 모든 마귀가 다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겼던 모든 마귀를 다시 이겨야 한다. 물론 한 번 이겨본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영생의 길은 참으로 길고도 먼 길이다. 이기고 이기다가도 한 번 지면 또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해방 후 마지막 道人들의 역사!

## 삼수의 원리와 완성자

상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인내하고 견디낸 구도역정!

이 책을 읽고 당신도 완성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상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하기까지 인내하고 견디낸 구도역정!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수많은 도인(道人)들이 있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을 보여주었던 한민족의 청동 道人들. 반면 일제강점기 전부터 급속히 한반도로 들어왔던 기독교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젖어들었으며 공교롭게도 6.25전쟁 후 약속이나 한 후 한국의 도(道)역(역)은 끊어지고 道人들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잊히게 되었다.

60년대 국내 최고의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던 백대산 장로의 총합비 교사 그 두 분은 기독교로 사귀어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고 기독교를 부흥시켜 아들의 사명을 이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서 키워낸 형의 道인! 상신으로 완성된 한 사람이 출현했다

출판사: 문광출판사 / 656쪽 / 양장본 / 원가: 45,800원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승리하라!**